

조선의 지도

장상훈 | 116~119호 조선 I~IV실 | 19:00~19:30

지도는 자기 자신을 직접 그린 자화상과도 같은 것이다. 지도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뿌리내려 살아 온 고장의 산줄기와 물줄기, 그들이 일구어 만든 고을과 마을이 그들 나름의 시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지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선인들이 만든 지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다. 옛 지도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여 자랑스러운 지도 제작의 전통을 이어왔다. 지도는 국토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 통치를 위한 필수 자료였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들은 국토와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충실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도 한 장 한 장에는 우리가 뿌리내려 살아 온 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배어 있다. 옛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땅에 대한 기록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두 형태로 남겼다. 지지가 지역에 대한 문자기록인 데 비하여 지도는 산과 강의 모습 그리고 땅 위에 만든 도시나 도로 등의 인문적인 문화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그린 일종의 그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에 보이는 지도 관련 기록들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삼국시대 이래의 지도 제작 성과를 계승한 조선은 왕조의 개창 직후인 1402년(태종2)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우수한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지도 중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수준과 문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이 본격화되어 국가와 민간에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곧 <전국지도>와 <도별지도(道別圖)>를 비롯하여, 서울지도와 지방지도, 세계지도와 외국지도, 군사지도와 여행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성과 위에서 1861년(철종12) 제작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17세기 이후 발전해 온 대축척 전국지도의 결정판으로 우리나라 지도 제작 전통의 금자탑이라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신과 미술

김혜경 | 306호 인도·동남아시아실 | 19:00~19:30

기원전 1500년경 인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인도-아리아인들은 자연현상을 신격화한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의식으로 동물이나 곡물을 태우는 제사가 행해졌다. 이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브라흐만) 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제사의 범식과 절차가 지나치게 발달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브라흐만 계급의 권위와 경직된 제식주의를 넘어 세계와 인간을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하는 사상 경향이 일어나, 기존의 종교와 사회 질서 밖에서 새로운 해답을 구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원전 6~5세기에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 붓다)와 자이나교를 창시한 바르다나마(마하비라)이다. 이 두 종교는 많은 신도들을 얻어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갔으며, 미술사에서도 많은 조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에서 굽타 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인도 고대기에는 불교미술이 독점하다시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아시아 각지에 퍼져 나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의 번영 뒤에서 힌두교의 신들과 그 세계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중세로 접어들면서 힌두교 미술이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힌두교에서 신들이란 결코 인간으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무·산·동굴·강 등의 자연은 모두 잠재적인 신성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원이나 신상·도상에서는 그러한 잠재적인 신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힌두교의 신들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복합적인 인격체로 묘사되는 특징을 지닌다. 각 신이 가진 여러 측면은 화신인 여러 아바타(avatar), 즉 화신化身를 통해 발현된다.



그림 1. 미르보살
2~3세기



그림 2. 문수보살
12세기



그림 3. 미투나
11~12세기



그림 4. 순례 체험을
위한 그림
19세기

상주 북장사 괘불 -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유경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북장사영산회괘불도>는 (보물 제1278호) 높이가 1,330cm에 이르는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한 괘불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석가모니불의 영취산靈鷲山 설법을 주제로 한 불화는 화면의 중앙에 불꽃문양 테두리를 장식한 광배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의 부처를 압도적인 규모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살중菩薩衆과 천부중天部衆, 제자들이 부처의 설법을 듣는다.

일반적으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에서는 법회法會를 주관하는 석가모니불을 대좌臺座 위에 앉은 모습으로 그리는데 비해, 이 불화에서는 일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부처의 모습은 야외 법회를 위한 괘불의 기능에 맞게 의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주존主尊으로 더욱 더 부각되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길어진 화면에 본존을 입상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경상북도 상주에서 조성된 <북장사영산회괘불도>에서 처음 나타났다.

1688년 조성된 괘불은 30cm 내외의 삼베 23폭을 이어 바탕을 마련하였다. 화기畫記에는 불화의 바탕을 마련한 시주에서부터 채색, 불화의 고리 [탱환] 시주자와 사중寺中에서 직·간접적으로 불사佛事를 후원한 승려이름을 포함하여 총 165명이 기록되었다. 괘불은 영산재靈山齋, 수륙재水陸齋와 같은 불교의식에서 사용되었지만 상주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때 비를 청하는 기우제祈雨祭에서도 이 대형불화를 걸고 의식을 거행하였다. 거대한 부처가 그려진 <북장사영산회괘불도>에는 영험을 기다렸던 당대인의 믿음과 신앙이 투영되어 있다.



그림 1. <북장사 괘불>, 1688년, 삼베에 채색, 1,330×811.6cm, 상주 북장사, 보물 제1278호



제49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6년 5월 18일)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

-토기대호 전시 유물 소개-

황현성 | 특별전시실 | 19:00~19:30

1964~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금강사 절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어 오랜 기간 국립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2011년 일제 강점기조사 미등록 유물보존처리 사업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보존과학부로 인수받을 당시 대형 토기는 약 660개의 파편이 120여개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박물관 수장고에서 보관중인 상태였다. 처음에는 토기의 색상이나 가시적 특징에 따라 임의적으로 6그룹으로 분리하였으나 보존처리가 점차 진행하게 되면서 한 개체의 대형기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 토기대호의 보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세척, 가접합, 접합, 복원, 채색 처리이다. 첫 번째로 가접합을 살펴보면 토기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두껍기 때문에 접착력이 약한 3M 테이프나 종이테이프보다는 청테이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청테이프는 장시간 유물에 부착하게 되면 접착제 성분이 유물 표면에 고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만 사용해야한다. 두 번째, 접합과정에서는 토기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먼저 중점도의 접착제로 접합한 후 고점도 접착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접합면 사이의 하중을 받게 한 후, 저점도 접착제로 토기 전체에 미세 접합하여 접착면의 강도를 보강시켜 주었다. 접합방향은 접합해야 할 편을 한꺼번에 잡고 힘을 주되 대형 토기의 곡선을 유지하면서 접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접합이 어느 정도 되면 접합면 사이가 뒤틀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넓은 고무줄을 이용하여 곡면을 고정시켜주었다. 세 번째, 복원작업에서는 대형 토기의 경우 복원해야 할 부분이 워낙 넓고 곡면을 살려야 하는 부분이 많아 액상수지로 복원하기보다 점토질의 복원제가 적합하다. 따라서 이번 복원과정에서는 좁은 복원면의 경우에는 뒷면을 테이핑한 뒤 토기의 색과 비슷하게 에폭시퍼티 (Quick wood : Fast steel = 4 : 1)를 섞어 복원하고 비교적 넓은 복원면의 경우는 SN 시트로 뼈대를 만든 뒤 Quick wood 로 복원시켜주었다. 복원제가

완전하게 경화된 후에는 대형 토기의 형태와 굴곡에 맞춰 모터 톨과 사포로 표면 정리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원제의 표면을 정리한 후에는 아크릴물감으로 채색처리를 하였는데, 복원부분이 지나치게 넓은 부분을 붓으로 칠할 경우 광택과 붓의 결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 표면에 찍는 방식으로 색맞춤을 하였다. 토기 안쪽의 복원부위는 사람이 들어가서 채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크릴물감과 물을 혼합하여 분사기로 분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처리하였다.



그림 1. 처리 전 상태



그림 2. 구연부 복원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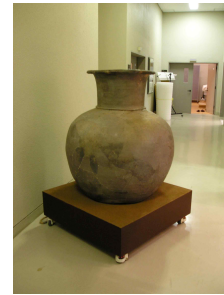


그림 3. 보존처리 후 상태